



군산시의회, 전통 차 예절 보급 운동 앞장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이 지난 10일 구 시청광장에서 열린 제2회 문화마당 차 겨루기 대회를 진행하고 개인 차차리 구성원으로 참석하는 한편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격려했다.

이번 차 겨루기 대회는 아동·청소년·성인으로 나누어 찾그릇 예절, 차 우리기 차 마시기, 차의 색향미, 인사예절 등을 평가하는 경연 방식으로 치러졌다.

또한, 세계 각국의 차를 접해보고 직접 마실 수 있는 기회였고 차를 처음 대하는 일반 시민들도 부담 없이 우리네 차 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체험과 무료시음회가 열렸다.

송미숙 의원은 "우리 지역도 고유의 야생차 나무가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 군산에 7대 특산품에 차가 들어 있으니 우리 지역의 전통차는 꼭 보급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대한의 예의범절을 갖춰 차를 마시고 차를 대접하는 일은 생활문화에서 중요한 일이다. 심사기준에 맞춰 심사를 하지만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다도를 통해 차와 예를 재조명하고, 군산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예절을 생활 속에서 접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 속에 뜨고 있는 만큼 우리의 차 문화도 세계 속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미숙 의원은 군장대 평생교육원 전통차 예절 강의로 지역차 전통차 보급에 앞장지고 있다.

또한 군산시도와 함께 한국차문화 군산차인회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고있으며, 조상들의 차 문화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세대에다 차도문화를 널리 알려 정신적 안정된 생활을 추구 발전시키기 위한 열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진안군, 건강체조발표회·건강경기대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9일 마이산북부 테마공원 행사장에서 열린 건강체조발표회 및 마이산 건강경기대회에 주민과 관광객 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건강체조발표회에는 8개 읍면에서 50세 이상 어르신들이 출전한 가운데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체조를 선보이며

어르신들의 흥과 끼를 아낌없이 발휘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려있던 어르신들의 흥이 북돋아져 활기차게 나오며 노년의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의 열정으로 대회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건강체조발표회 후에는 마이산 건강경기대회가 이어져 사양제 후수를 지나 가위바둑판까지 다녀오는 코스로 코스모스와 국화가 펼쳐진 꽃길을 걸으며 가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건강체조발표회에 참가한 마령면 문포(82) 어르신은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춤을 추고 사람들과 자주 만나며 오랜만에 살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너무 행복했다. 젊어진 기분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춘라이온스클럽-노암동, 환경개선 협업

남원시 노암동(동장 임점숙)은 지난 10월 5일, 남원춘라이온스클럽(회장 김연임)과 협업해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관내 취약 가구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나섰다.

이번에 선정된 가구는 노암동지의 1일 1가구 소용행정으로 발굴한 가구로,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방치된 것을 남원춘라이온스클럽에 협조를 요청해 진행하게 되었으며, 해당 가구에 대해 쓰레기수거, 잡초제거, 집과 마당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을 진행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봉사 내내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연임 회장은 "앞으로도 취약 가구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위풍당당 전국 실버가요제’

노인의 날 맞아... 전주 풍남문화광장서 성료

노인의 날을 맞아 한국문화예술포럼회 전북본부가 주최한 제5회 위풍당당 전국 실버가요제가 지난 8일 전주 풍남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위풍당당 전국 실버가요제는 노인의 날 기념과 실버 세대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재능계발, 삶에 용기, 힐링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가요제에서 김양옥 제진위원장, 이수정 추진위원장, 함의옥 섭외위원장, 강정원 준비위원장 등 주요 임원들과 관람객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예선에서 통과한 12명이 무대 위에서 자신의 노래실력을 보여줬다.

이번 가요제 대상에 김동석(전주)씨가 차지했다. 김종득(경기 안성)씨가 최우수상을 수상받았으며, 소

합섭(익산)·문신호(광주)씨가 우수상을, 육종만(전주)·황귀태·김만석(경남 하동)씨가 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이어 흥창지(경남 진주)·안병엽(전주)씨가 장려상을, 김순이(광주)·성금례(정읍)씨가 인기상을, 임윤희·정영숙(이하 전주)씨가 실버상을 수상받았다.

가요제와 함께 열린 대회 공로표창 수여식에서 신정숙 부창포드 대표가 전북도지사 표창을, 최정숙 동방블래 단장이 전북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가수 송용삼씨는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어 이호기씨가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을, 이명철 등이 이호기씨가 정운천 국회의원 표창을 받게 됐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완산학원 제3기 임시이사 선임장 7명 수여

학교법인 완산학원 제3기 임시이사 선임장 7명 수여



11일 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이날 본청에서 완산학원 임시이사 7명에게 선임장을 수여한 후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북교육청에서 추천한 인사 가운데 교육계 4명, 시민단체·언론·법조·의료계 한 명씩 총 8명을 완산학원 임시 임시 임원으로 임명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시이사

선임 포기서를 제출한 1명을 제외한 7명에게 선임장을 수여했다. 추후 결원인 임시이사 1명은 다시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이사 임기는 2022년 10월 11일까지 2년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완산학원은 설립자와 이사장 등의 비리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임시이사를 선임·운영해왔지만 아직도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제3기 이사들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산학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남원시, 가족사진 공모전 당선작 선정

남원시보건소는 제6회 이야기가 있는 가족사진 공모전 당선작 20점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야기가 있는 가족사진 공모전 주제는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담아 △아빠 육아, 함께 육아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이어져 총 174점이 접수된 가운데, 의미성, 작품성, 완성도 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총 20점(행복상 2, 가족상 2, 화목상 7, 미소상 10)이 선정됐다.

당선작은 흥부제 등 각종 행사 시 남원시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출생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며, 당선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출산지원담당(620-79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보건소 최민자 건강생활과장은 "자녀와 함께 즐거웠던 순간을 담은 가족사진 공모전으로 모두가 함께 한 추



억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초, 학생들과 탄소저감 나무심기 행사

남원시와 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남원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6일과 7일 남원초 학생 100여명과 탄소저감나무 식재 행사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지난해 시민과 중고생, 남원시의회 등 탄소저감 식물 케나프를 심어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운 데 이어, 올해는 대상을 넓혀 관내 초등학생에게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할 탄소중립 실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탄소중립과 식재나무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직접 탄소저감나무 모종을 심는 시간과 함께 힘을 모아 나무를 심은 후 지구를 지키자는 마음을 담은 팻말을 만들어 디는 등 탄소중립과 기후위기극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10월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화재 발생 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축사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오는 10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사시설 화재 예방대책은 지난 8월 김제시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축사시설 화재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축사시설 화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른 축사화재는 총 274건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가 약 153억에 달한다. 주요 화재원인으로는 전기시설(118건), 부주의(69건), 기계적 문제(21건) 등이 있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10월 31일까지 △축사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점검 △소방관서장 현장점검 및 지도 △축사시설 소방특별조사 △축사농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제26회 노인의 날 행사 개최

진안군은 11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노인의 날은 노인에게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고,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 표시를 표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기념식에는 전춘성 군수, 김민규 군의장 및 군의원, 노인회원 등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모범어르신상(진안군수상)'에는 회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하고 노인복지에 기여한 임성빈(79세, 남) 어르신 등 12명, '장한어르신상(노인회장상)'에는 한부집(75세, 남) 어르신 등 11명이 수상했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의 인사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읍, 노인의 날 행사 성황

장수읍 노인회가 주최하고 장수읍자살예방대구가 주관한 '제26회 장수읍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잔치'가 11일 의암공원 야외무대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최훈식 군수와 장정복 군의회의장, 박용근 전라북도의원, 안동혁 장수경찰서장, 김기완 장수읍장, 허윤중 장수교육장, 장수농·축협장, 신림조합장 등 각급 기관·단체에서 참석했다.

사전행사로서는 진버들 고고장구 동호회 공연, 색소폰공연이 흥을 돋구고 기념식에는 노인발전에 공로가 큰 순경임(74세, 북동 마을)씨가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에서 모범상을 수여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 향교동, 레몬 향비누 만들기 체험·나눔

남원시 향교동은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매일 오후 1~4시까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에서 마을주민들과 향기나눔 체험행사를 통해 사랑의 향기를 전한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주관하고 남원시보건소,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와 민관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체험행사는 향기로운 향(香)교동, 향기를 품은 향교동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향교동들을 주제로 마을중심, 관계중심, 사람중심 복지마을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향3-향교동이 사람을 품다' 사업이다. "향교동의 가을, 사랑의 향기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서로 도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 한 조각 나눔" 슬로건 아래 4일 동안 진행된다.

/남원=김기두기자

완산소방서, 대도민 심폐소생술 집중 홍보·교육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11일 최초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심폐소생술 중요성, 방법을 기억할 것을 당부했다.

가운이 하강하는 10월부터 심·뇌혈관 질환 발생, 급성 심정지로 한해 20%가 사망하며 심정지 환자 발생 1분 이내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 95% 이상이나 골든타임을 4분을 넘기면 생존율이 25% 이하로 낮아져 집중 심폐소생술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김장수 서장은 "심정지 발생 시 초기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은 필수이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인사

▲장아인·독거노인을 위한 제4회 별빛 문화예술콘서트 = 일시: 15일(토) 오후 4시 30분, 장소: 전주 풍남문화광장, 주최: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문의: 063-281-6678, 281-6689